意志의 齒科人 28 安炯珪 先生님

自宅에서 書道을 즐기시는 學長님

서울大學校 齒科大學 勤務 30年! 1947年 9月 서울大 齒大 口腔外科에서 첫발을 내놓은지 30年에 이르는 오늘까지 오로지 敎壇에서 後進育成에 몸을 받혔다. 齒科醫學界에서 重鎭으로 活躍하시는 齒科醫師先生님의 大部分이 安炯珪 敎授의 弟子이다.

現在 齒科醫學 敎育機關으로서 母體를 이루는 서울大 齒大 學長으로 계시는 意志의 齒科人 安炯珪敎授는 한결같이 温和하고 重厚한 맛을 지니고 있다.

工夫하는 大學校로서의 學風을 造成하는데 適任者로서 認定받아 學長에 拔擢되었다는 巷間의 風聞이 그렇드시 大學 全體가 그의 性品과 같이 조용한 가운데 '77年 5月에 學長에 就任한 以來, 再任命을 받기에 이르렀다.

1970年 7月에 이미 大學附屬病院長을 歷任한바 있는 意志의 齒科人 安炯珪 교수는 또한 齒科放射線學의 開拓者이기도 하다.

裝備가 貧弱하기 이를데 없는 狀況에서 齒科放射線學 敎室의 設立이란 적지않은 어려움이 뒤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齒科放射線學에 對한 硏究의 執念은 他 耳鼻咽喉科 分野에서도 그에게 諮問을 받는 境過가 許多하다.

意志의 齒科人 安炯珪교수는 大韓齒科醫師協會 學術委員長으로 在任하는 동안 當時 全體 會員의 念願의 하나였던 協會誌를 年 2回 發行하는 記錄을 남기기도 했다. 年 1回 發行도 不可能했던 當時로서는 그의 意志의 一端을 엿보는 듯하다.

오늘의 協會誌가 月刊 發行이라는 課程에 있어서 지난날 安炯珪 교수 같은 숨은 功勞者가 있어서였다는 것을 想起할 때 當時의 切迫한 狀況을 再吟味해 볼 如地가 絕對로 있다고 본다.

아마추어 書藝家로서의 意志의 齒科人 安炯珪 교수는 지금도 退勤後로는 곧잘 붓을 잡는다.

東盛齒科技工所

代表 趙 煥 東

서울 종로구 낙원동 236

☎ (73) 0474 · (72) 9712